업비트, 코인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후폭풍

"사전 통보·협의 없었다"… 코인 운영사, 강경대응 예고

변동성 커지며 투자자 피해 속출
가상화폐 측 공시 등 일제히 해명
"이례적 대처… 시장 충격 상당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30개에 달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또는 '원화 거래 종료'를 결정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가상화폐 프로젝트부터 포함되지 않은 곳까지 투자자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리스트 관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15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폐지 종목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원화마켓 페어 제거 발표 공지 후 가격 변동 현황〉

코인명	11일 공지이전	15일 오후 2시	변동률
마로 (MARO)	301	110	-63.46%
페이코인 (PCI)	1190	855	-28.15%
옵저버 (OBSR)	17.2	7.14	-58.49%
솔브케어 (SOLVE)	184	99.8	-45.76%
퀴즈톡 (QTCON)	5.55	2.31	-58.38%

(단위 : 원) /업비트

앞선 지난 11일 업비트는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가상화폐에 대해 원화마켓 내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업비트 측 관계자는 "공지사항에 전달한 것 처럼 내부 기준에 달함에 따라 원화마켓 페어 제거를 진행하게 됐다"며 "원화마켓에서는 제거되겠지만 BTC마켓에서는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며, 향후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들의 원화마켓 페어 복구 혹은 유의종목 지정 등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비트의 조치에 대해 해당 가상화폐 측도 일제히 해명을 발표하며 투자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는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업비트 조치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업비트 원화거래 중단 이후에도 결제사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퀴즈톡 측에서도 업비트의 조치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해당 가상화폐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1190원을 유지하던 페이코인은 발표 이후 단 두시간만에 700원대로 급락했다. 이후 500원대로 하락한 페이코인은 해명문과 함께 1000원대를 복구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 770원대에 거래 중이다.

퀴즈톡도 같은 기간 동안 56원대에서 30원대로 주저앉았으며,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 20원대 초반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내 발행 코인을 뜻하는 '김치코인'을 겨냥하면서, 나머지 김치코인들도 불안감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메디블록, 밀크, 보라 등 발행사들도 입장문을 통해 사업현황을 공개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유의종목·원화페어 제거 등으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소형 거래소 폐지와 일부 잡코인 정리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번 대형 거래소의 이례적인 대처에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태양광 랜턴으로 아이들에 희망의 빛 전해요"

신한금융그룹 자원봉사 대축제

조용병 회장 참여 언택트 봉사활동
2000개 태양광 랜턴 아프리카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15일 조용병 회장과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글로벌 원 신한(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 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광 랜턴 만들기' 봉사활동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태양광 랜턴은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가 필요 없는 친환경 랜턴이다. 빈곤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 램프를 대체해 화재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야간 학습에 도움을 주는 등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지켜주는 '희망의 빛'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랜턴 만들기'는 신한금융 봉사활동의 3가지 주제(맑은 도시 만들기,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밝은 미래 만들기) 중 하나인 '아이들을 위한 밝은 미래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신한금융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제작한 2000개의 태양광 랜턴을 아프리카 오지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신한은행 디지털 방송국에 구축한 AR 스튜디오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해 구현한 아프리카 마을 현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신한은행 디지털 방송국에 구축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을 활용해 실제 아프리카 마을의 현장을 구현했다. 참가자들은 태양광 랜턴을 만드는 동안 AR을 통해 현지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제작한 태양광 랜턴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활용한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글로벌 원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는 2008년부터 14년째 이어온 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공존(복지) ▲공감(문화) ▲공생(환경) 등을 중점 분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ESG의 항목 중에서 E(친환경)과 S(상생)를 중심으로 비대면 개별 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중에 풀린 돈 3360兆… 사상최대치 경신

한은 4월 중 통화·유동성
4월에만 50조 이상 급증

시중에 풀린 돈이 3360조원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에만 50조원이 넘게 급증해 증가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36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조6000억원(1.5%) 증가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2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2월(2.0%)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4%로 늘었다. 전월(1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2009년 2월(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체별로는 모든 경제주체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기타금융기관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공모주 청약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으로 15조7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주택자금 대출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로 9조9000억원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업계 경쟁자도 산업 역량강화 위해 동지로

〉〉 1면 '이베이發 이커머스'서 계속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지분을 인수한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합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은 카카오커머스와 다음달 합병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질세라, 네이버는 그동안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신선식품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물류기업 CJ대한통운과 손잡았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신선 물류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커머스 업계 경쟁자인 신세계와도 협력하는 중이다. 지난 3월 커머스·물류·멤버십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당시 해외진출을 거론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 법인 설립과 시범서비스 개시에 이어 현지 직원을 채용중이다. 쿠팡은 지난 4월 말 도쿄 주오구에 일본법인 CP재팬을 설립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는 도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싱가포르 진출도 진행중이다. 최근 싱가포르법인 최고운영책임자, 물류·리테일 부문 대표 등을 채용하고 물류·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등에서 실무자·임원 등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